

김해성 시문학에 나타난 불교적 세계관과 미적 특성 연구*

허 만 옥** (남서울대)

< 목 차 >

- | | |
|------------------------------|-------------------------------|
| 1. 서론 | 3. 미의식의 불교시학적 전개와
그 기제의 특성 |
| 2. 친자연적 서정미학과 불교적
세계관의 형성 | 4.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시인 김해성의 여러 시편들 가운데, 불교적 정취와 조화로우미의 시적 수용이 돋보이면서 불교적 상상력이 두드러진 작품들을 중심으로 그의 불교적 시학의 의미를 살펴보는 한편, 시의 미학적 형식을 형성하는 그 기제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근대 서구의 이원론적 철학과 위계론적 세계관을 극복하고자 하는 오늘날 현대시의 대안적 사유 가운데 하나가 불교적 상상력에 있음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불교적 상상력이 보여주는 사상체계와 생산원리를 통해 자신만의 시적 미학을 적극적으로 구축해 온 김해성의 시편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불교시학적 전개와 기제의 미학적 특성이 구현되고 있다.

첫째, 김해성의 시에는 불교시의 전통적 주제와 불교사상의 공간을 견고히 구축하고 있는 작품들이 많다. 불교적 상징물이 소재로써 작품에 자주 등장하거나 주제 면에서도 불교적 인식체계가 구체적으로 형상화된다. 우주의 모든 사물이나 존재는 서로의 원인이 되며, 삶과 세계는 대립을 초월하여

끊임없이 반복 순환하면서 하나로 융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기와 윤회의 상상력에서 자아와 세계는 재생과 변신을 한없이 되풀이하는 영원한 서사다.

둘째, 김해성이 보여주는 불교적 상상력은 주체와 타자, 사물과 의식, 존재와 비존재를 구별하지 않는 불이(不二)의 정신이다. 객관적 존재인 나와 내 앞에 놓여 있는 객관적 존재의 일체인 대상 간의 합일을 의미하는, 곧 물아일체(物我一體)의 세계관이다. 이는 결국 존재 사이의 모든 경계를 이루는 것이 사라짐으로써 궁극적으로 차별과 대립이 없는 원융무애(圓融無碍)한 화합을 이루고 창조적 순환과 통합을 이루어서 마침내 우주 본성이 회복되기를 꿈꾸는 것이다.

셋째,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는 불교의 위대한 통찰을 시작(詩作)의 중심 사상으로 삼았다. 이 세상 만물은 어느 것도 영원불변한 고정적 존재가 있을 수 없다는 제행무상의 인식은 시인으로 하여금 나이, 늙음, 죽음, 존재 등의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이러한 시적 대상을 전일적 생명으로 직관하고 존재의 실체 너머를 추구한다. 또한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의 바탕 위에 인간이 번뇌에 빠지게 되는 것은 물(物) 그 자체보다도 그것에 대한 소유욕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비움으로써 무아의 자연이 될 것을 촉구한다.

넷째, 김해성의 시작품 '선가(禪歌)'에는 함축적이고 암시적인 상징과 비유를 차용하여 시인의 선적 미의식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로써 선시(禪詩)의 성립을 가능하게 하였다. 즉 선시의 형식논리는 이론적이거나 합리적 사고를 초월하는 언어의 비유와 상징과 은유를 표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는 고도로 절제되고 압축된 표정으로써 실상으로부터 감지된 그의 예술적 직관을 유감 없이 발휘하고 있다. 선적 진리의 표현에서 시선일여(詩禪一如)의 언어를 탐색하는 김해성의 시세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까닭이다.

이와 같이 김해성의 시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시작활동이 불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서 출발한다. 즉, 시인의 미의식이 불교적 상상력과 그 미적 포괄성에 맥락이 닿아 있음을 뜻한다. 특히 김해성의 불교시학적 사유체계는 불교적 상상력이 지닌 자체의 그 독특한 미학과 더불어, 서구의 도구적 자연관과 인간중심적 가치관을 대체할 수 있는 현대

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근대의 기계론적 인과론과 달리 사물들의 인과 관계가 순환적·비선형적인 관계를 이루고, 구별과 분별을 부정하면서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바라보며, 세계를 분리된 부분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통합된 전체로 인식하는 불교적 상상력에서는 서구 근대가 만들어 낸 긴장과 분열과 갈등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 상실한 자연과의 일체감과 동일성에 완벽하게 조응하고 교감하는 대안적 산물이라 할 만하다.

주제어: 김해성 시문학, 불교적 세계관, 불교시학, 윤희의 상상력, 물아일체(物我一體), 직각(直覺), 오도(悟道), 선가(禪歌)

1. 서론

모든 시인의 시 속에는 그 심층을 관류하고 있는, 즉 그 시인만이 드나드는 마음의 길이자 상상의 길이 있게 마련이다. 바로 시인의 정신이 어떠한 양상으로 시화되는지를 알 수 있는 시정신의 본질적 정체성을 말한다. 시에 투영된 일종의 메타적 성격 혹은 자기 반영적 특성으로서 이는 시인마다 지니고 있는 서정의 틀을 구체적이고도 차별적인 것으로 만든다. 마찬가지로 김해성의 시작품 속에도 잘 다듬어진 몇 개의 뚜렷하고 익숙한 길이 있다. 자연 친화의 시심이 작용하는 가운데, 특히 불교를 중심으로 모든 종교와 회통하고 있는 정취와 조화로움의 시적 수용이 그것이다. 인간적인 ‘나-너’의 길과 초월적이며 윤희적인 무(無)의 길을 운명인 듯 오고가는 그의 시는 불교 미학적 인식 형성¹⁾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역사와 시대에 조응하는 원형

* 이 논문은 2016학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남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 교수

심상의 구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해성은 1955년 『새벽』 지를 통해 등단한 이후 꾸준히 시를 쓰며 문단생활 60년을 이어왔다. 그의 2000여 편에 이르는 현대시편들은 인간과 자연과 삶의 경계에서 끝없이 존재를 확인하고 본질을 향한 질문을 던지며 시적 대상을 끌어안았고, 그러한 가운데 발표된 『영산강』, 『치악산』, 『남해의 북소리』 등과 같은 서사 시편들은 훨씬 담대하고 적극적인 서정을 통과시키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인 김해성의 시적 모색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정신적 주유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불교적 사유다. ‘불법(佛法)은 만법(萬法)이며 만법은 불법’이란 진리를 시적 사유와 상상의 논리로 수용한 그의 시세계에서 불교정신은 곧 그의 작품세계에서 원형질적인 통일성을 형성한다. 더욱이 그 시편들은 10여 년에 걸친 시인의 산사에서의 직접 체험과 그곳에서 수행하는 스님들과의 인연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리얼리티가 더욱 고양된다.

우리 근·현대시의 경우, 그 동안 높은 시적 성취를 보인 시인들의 작품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일정 부분 불교적 세계 인식이나 상상력이 내재되어 있다. 특히 한용운, 서정주, 조지훈, 조오현, 황동규 등은 불교적 사유를 시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성공한 대표적인 현대시인으로 평가받는다. 불이(不二)와 공(空), 윤회전생, 허무와 무상, 선적 무념의 사유 등 각각 시인들만의 고유한 상상과 사유의 논리를 펼쳐온 것이다.²⁾ 불교는 전래 이후로 우리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지배하였고, 문학에서도 불교사상과 결부된 작

1) 불교적 사유는 물론 반대적인 것이지만 신비주의적 서정성을 매개로 현대시의 시적 사유와 상상의 논리에 수용되면서 불교적 시학을 생성하게 된다. 이때의 불교적 시학은 불교사상으로 환원될 수 없는 고유의 시적 사유와 상상의 창조적인 논리다. 시학은 상상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으로도 환원될 수 없는 고유한 영역이지만, 그 고유성이 시학을 감싸고 있는 작가의 정신세계, 문학사적 배경, 정치·사회사적 배경과 전혀 무관할 수는 없다. 시학의 고유성을 입체적으로 탐구하기 위해서는 작품을 예외한 특수한 환경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김옥성, 「한국 현대시의 불교적 시학」, 『문학·선』 2006년 봄호, 242-243면.)

2) 김해성의 불교적 상상력은 이들 시인들의 전통을 착실히 계승하기도 하고, 시인 자신의 전기적 체험을 토대로 독특하게 변용되기도 하며, 불교사상의 관점에서 다채롭게 변주한다.

품이 생산되면서 한국문학의 심미적 사유의 낮익은 기층을 형성하며 한국시문학의 정신사 뒤에도 불교가 하나의 세계관적 기반으로 작용해 온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시 가운데 나타난 불교적 세계인식이나 그 상상력을 심층적으로 고찰하는 일은 한국 현대시를 보다 깊이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이다.³⁾ 그러나 한국 현대시의 불교적 미의식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소수자에 의한 주변적인 관심사에 머물거나, 위에 열거한 몇몇 시인들에 국한되어 있다. 이것은 기존의 선행 연구들⁴⁾이 불교적 세계인식과 상상력의 측면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경우가 드물었고, 무엇보다 특정 시인들과 작품에만 정도되어 온 답습과 편협성에 기인한다.

본고는 시인 김해성의 불교적 시학의 의미를 타진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때 불교적 시학이란 시인의 시적 사유와 상상력이 일관되게 불교적 사상과 사유의 체계에서 작동하는 지향성으로 규정한다. 그리하여 한국문학사를 관류하는 정신사의 한 줄기로 확고하게 자리잡은 이러한 불교적 사유가 김해성 시문학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시의 미적 형식을 형성하는 기제는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오늘날 현대시에서 확인되는 불교적 상상력이 그 독특한 미학과 더불어, 세계나 삶의 인식에 있어 서사적 틀에 가까운 알레고리와 공간을 확보하고 있음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김해성 시

3) 홍신선, 「한국시의 불교적 상상력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제43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4, 36면.

4) 지금까지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불교적 세계관과 상상력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장영우, 「불교적 상상력과 현대시의 세계관」, 『한국어문학연구』 제43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4 ; 홍신선, 「한국시의 불교적 상상력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제43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4 ; 김옥성, 「한국 현대시의 불교적 시학」, 『문학선』 2006년 봄호 ; 박몽구, 「현대시의 선적 상상력, 그 현실과 문제」, 『불교문예』 통권33호, 불교문예출판부, 2006 ; 김옥성, 「한국 현대시의 불교 생태학적 상상력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2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9 ; 김홍진, 「현대시의 근대 극복 대안으로서 불교적 세계관」, 『한국문예창작』 통권20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0 ; 송수권, 「불교적 상상력과 시」, 『유심』 통권46호, 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10 ; 신익호, 「현대시와 불교적 상상력」, 『문학마당』 통권36호, 문학마당, 2011 ; 신진숙, 「불교적 상상력과 미적 포괄성」, 『유심』 통권54호, 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12.

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작품을 총망라한 전집 발간⁵⁾이 이루어졌고, 수천 편에 이르는 시편들로써 어느 정도 연구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본다. 물론 양적인 측면이 시학을 논하는 잣대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많은 시는 시적 주체가 지향하는 압도적인 시학을 추출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며, 객관적인 연구 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

김해성 시작품에 대한 본고의 이 시론(試論)은 그의 시에 나타난 서정인식과 중심원리를 밝히고 파악하는 한편, 그의 불교적인 시적 지향이 우리 현대사에서 어떠한 의미를 확보하는가에 대한 논구가 제 일차적인 목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나아가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불교적 세계인식과 상상력을 형상화한 시인 및 작품의 새로운 발굴이라는 점에서 그 연구 대상의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천자연적 서정미학과 불교적 세계관의 형성

김해성은 1955년 『새벽』 지에 시 「산방(山房)」이 주요한, 김용제 시인의

-
- 5) 김해성 시인은 남도(南道)의 시전(詩田)에서 남다른 문학애의 열정과 자질로 주목 받으며 일찍이 문단에 나왔다. 그리고 교수로서의 문학이론과 창작을 겸비한 학자 겸 문인으로 많은 작품을 발표하였다. 『김해성시문학전집』은 총8권으로 제1~3권은 현대시, 제4~5권은 서사시, 제6권은 시조와 동시, 제7권은 산문, 제8권은 시인론으로 구성되었는데, 시인의 뚜렷한 자의식과 오랜 시도(詩道)의 여정과 시작(詩作) 생활을 집대성한 결정판으로 그의 삶과 인생관, 세계관과 종교관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테면 서정적이며 주지적인 의식과 전통적이며 토속적인 자연관 등이 인생사의 짙은 휴머니즘의 감동을 담아내면서 투철하고 확고한 민족의식을 통해 역사의식의 일면을 보여준다. 그리고 본고에서 주목하고 있는 불교적 세계, 즉 불타(佛陀)로의 지향을 통해 무한의 이상향에 대한 동경을 그려낸다. 무엇보다 전집 발간으로 김해성 시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제시가 이루어졌음을 전제하고 이를 조명함으로써, 김해성 시연구를 통한 현대불교시의 시인 발굴 및 지평을 확장시키는 데 그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심사로 당선되어 등단하였고, 이듬해 『자유문학』 지에 시 「신라금관」 외 2편이 김광섭, 모윤숙, 김종문 시인의 3회 추천을 완료하면서 본격적인 시창작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김해성은 60여 년간의 시작품 창작과 45년 간의 대학강단을 통해 각각 33권의 시집과 문학이론서 20여 권을 발간하며 순수 시인으로서의 창작생활과 교수로서의 연구생활을 이어갔다. 그러한 동안 그의 시는 자신의 시론과 아포리즘을 통해 다양한 시적 변모를 거치며 독자적인 시적 세계를 지속적으로 시현해 왔는데, 이에 대해 김해성은 자신의 시창작 활동 60년에 대한 작품의 경향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첫째 초기의 순수하고 서정적인 경향의 10년 간, 둘째 중기의 주지적·서정적 사상의 융합적 경향의 10년 간, 셋째 후기의 인간의 본향적 사상과 토속적인 사상의 융합적인 경향의 사상, 또는 知情意禪의 융합적 사상을 조화하려는 경향의 20년 간, 넷째 자연섭리 사상과 실존적 사상과 순수 인간의 본향 사상을 융합·조화하려는 경향의 1990년대 중반 시기, 다섯째 불교사상인 불법이 만법이라는 만법귀일래 사상과 향토 사상과 체험 및 경험의 조화·발산의 2000년대, 여섯째 자연과 인간과의 일체화 사상의 현재로 나누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김해성 시문학의 불교적 세계관을 고찰하고자 하는 본고는 그의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시를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구분은 다각적인 시적 상상력과 포용력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우세하게 드러난 주제와 경향을 편의상 분류한 것일 뿐, 김해성의 시적 입론을 형성하고 시창작의 미학적 특질을 보여준 바탕은 일관되어 있었다.

즉 이러한 다양한 변모 양상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작품 속에서 변함없이 발산되는 시의식의 기저에는 두 개의 축과 기반이 있다. 다름 아닌 친자연적 서정미학과 불교적 세계관이다. 이 둘은 서로 병치되기도 하고 혼용되기도 하며 어느 하나가 강조되기도 하지만, 시적 변모 과정에서도 여전히 견고한 순환고리로 작용하면서 그의 시적 구심을 형성하고 있는 강력한 틀이다. 어쩌면 시인 김해성의 내면에 존재하는 시적 정신의 완전하고도 일체적인 우로보로스(ouroboros)로서의 해법이었는지 모를 일이다. 심지어 이러한 자연 친화의 순수서정과 불교사상의 감수성은 그의 문단 등단작에서부터 확인된다.

산방에 겨울이 가고
춧불이 봉오리 피워 오면
봄밤을 새우고 온
옛된 여스님의 설레는 마음...

영원이 뚜욱 딱 지고
도토리 구르는 소리 속에
염불 소리만 조는 듯 하는데

이른 새벽 산길에
길길이 자란 山草랑
침녕쿨 짚레순 이슬에 젖어
뻗는 숨소리 산골 물까지 닿고

깊은 산속을 노루처럼 나는 서성대면
저 산 너머 절간의 목탁 소리
山, 山, 山
山이 울었다.⁶⁾

본래 인간은 자연과의 합일을 지향한다. 자연에 순응하고 귀의함으로써 자연으로부터 위안을 얻으며 여러 가지 보배로운 것들을 제공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과 인간사의 모든 관계와 유대는 예부터 문학의 소재로 채택되어 왔다. 자연의 신비로움, 아름다움, 순수함 등은 인간사에서 접할 수 없는 고도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식되었고, 인간사의 노력과 좌절, 고통과 회한, 전통과 미의식 등의 요소 역시 보편적인 시적 소재로 즐겨 활용되었다. 마찬가지로 김해성의 시편에서도 자연은 삶과 정서가 투사된 상관물로 존재한다. 따뜻한 봄날의 단상과 산방을 지키는 “옛된 여스님”, 그리고 그 “깊은 산속을 노루처럼” 서성이는 “나”와의 교감이 짧은 시형 안에서 조용한다. 차갑고 지루했던 긴 겨울을 이겨낸 산길에는 “길길이 자란 山草랑/침녕쿨 짚레순”이 우거지고, 그런 봄밤을 맞는 젊은 비구니의 가슴은 펜시리 설레어 밤을 지새

6) 「山房」, 『김해성시문학전집』 제1권, 한국시사, 2015, 46면.

운다. 속세에의 미련을 미처 떨치지 못한 한숨일지 모를 “뺨는 숨소리 산골 물까지 닿고”, 그래서 더욱 힘차게 두드리는 목탁 소리는 산의 울음인 듯 온 산을 울리고 있다. 자연친화를 통한 애뜻하고 정겨운 서정주의의 표상이다. 인간과 자연의 다채롭고 다양한 측면들이 시적 소재로 수용되고 있으며, 그것들은 향토적·토속적 자연관을 발현하며 한국적 휴머니즘이라는 시적 기능을 발현하고 있다. 그런데 김해성의 시 안에서 그려지는 자연은 줄곧 불교적 상상력과 결부되거나 용해되어 있는 정경이다. 위에서도 “도토리 구르는 소리 속에” 즐고 있는 “염불 소리”를 접속시킴으로써 자연과 불교적 시학의 교직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이미 등단 초기부터 김해성의 미학적 지평은 불교적 상상력과 미의식에 단단히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김해성 시에서 자연은 불교적 상상력을 작동시키는 일관된 제재로서, 그의 작품에 형상화된 자연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시인의 불교적 작품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 친자연적 서정이란 자연을 주요 소재로 택했거나, 또는 시인의 태도나 정서가 자연과 친화적인 것을 말한다. 실제로 김해성은 대나무, 난, 동백, 국화, 매화, 소나무, 목련, 모란, 연꽃, 산, 강, 바위, 구름 등 수없이 많은 자연 이미지를 소재로 하여 자신의 세계관을 이입, 환치, 상징, 은유하였다. 이로 인해 소재의 측면에서 보면 꽃과 나무, 강과 산이라는 심상들에 대한 편향성을 지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단순히 소재로서 많이 채용되었다는 점에서 편향성을 말하기보다는 자연과의 동화, 혹은 자연에 대한 수용적 태도로 전도된 시상에 의한 진정한 의미의 자연친화적 편중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즉 그의 시상(詩想)의 대부분은 꽃과 나무, 강과 산에서 얻고 있는 자연친화적 서정성⁷⁾이다. 한국 전통 서정에 뿌리박고 시작(詩作) 활동을 지속해 온 김해성에게서 꽃과 나무, 강과 산은 그대로 정

7) 미당 서정주의는 사제지간으로 전주교와 동국대 대학원 시절부터 오랜 친분을 맺어왔다. 미당은 김해성의 시정신과 시세계에 대하여 “우리 겨레의 절대불굴전의 그 웃음의 힘 같은 시정신을 그의 시작품에서 느끼며”, “한국인만이 가질 수 있는 섬세한 서정과 한국적 토속성과 지성과 서정이 융합된 시세계, 그리고 한국적 아픔의 정한을 넓은 폭으로 그려낸 서사시세계는 한국의 어느 시인도 당해낼 수 없는 강인한 시정신을 가지고 있다”(『김해성시문학전집』 서문)고 단언하였다.

신의 생리이자 영혼의 인식처이고, 시적 대상이자 심적 발상이며, 그리고 불교적인 이미지를 연결하는 기체이자 생산을 매개하는 원리였다.

하지만 시는 단순히 감정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대상과 어울려서 인식을 겨냥하는 일이다. 인식을 겨냥함으로써 시인과 사물의 내면 사이에 새로운 매듭이 마련되고, 시인과 사물 사이에 새로운 교감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시는 완성된다. 따라서 김해성의 시가 지니는 자연친화적 특성 역시 단순히 자연적인 소재가 많이 채용된다는 데 있지 않다. 그것은 자연을 통해 삶의 한 경지를 발견한다는 점에서 추출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연으로부터 촉발되는 정서나 내면의 불교적 세계 인식과 삶의 해석이다.

동양의 얼굴
수정처럼 고운 미소

진흙밭에서
생생히 피어 오른 목숨

청림을 더럽힐 수 없어
몇 포기 쌓아 올린 꽃망울

은은한 향기 속
6월 바람결은 조출한데

아직 너의 고향엔
불빛이 밝지 않아

캄캄한 하늘을 이고도
대낮처럼 연꽃은 밝게 산다.⁸⁾

진흙밭의 커다란 잎 사이로 피어오르는 연꽃, 그 아름다운 자태는 동양미의 극치이자, 서방정토(西方淨土)의 상징이다. 화자는 “동양의 얼굴 / 수정처럼

8) 「연꽃」, 『김해성시문학전집』 제1권, 한국시사, 2015, 172면.

림 고운 미소”의 서정적 상징에 매료되면서 “청렴을 더럽힐 수 없어 / 몇 포기 쌓아올린 꽃망울”이 유월 바람결에 조출한데, 아직 “불빛이 밝지 않”은 고향 역사의 격동을 되새기면서 “깜깜한 하늘을 이고도” 대낮처럼 밝게 사는 그 날을 조응한다. 역사적 격동의 비극은 아물지 않고 향긋한 유월은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는데 서방정토에서와 같이 환하게 웃고 살 그 날의 밝음을 연꽃으로 조삭(彫朔)하고 있다. 처절한 삶의 현실에 대응하여 연꽃을 이미지화하면서 역사적 아픔의 되새김 속에 정토의 그 날을 환하게 핀 연꽃으로 부조화(浮彫化)하는 것이다. 향토적 토속적 자연관에 뿌리박고 있는 시인의 한국적 휴머니즘이 시 속에 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휴머니즘은 자연에의 몰입과 관조와 성찰이라는 불교적인 직관으로 일관한다. 즉 시를 통해 시인은 불타(佛陀)와의 친화와 지향으로 더 큰 이상 세계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김해성 시의 이러한 불교적 상상력은 특정 공간을 배경으로 하여 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바로 ‘산’이다. 그의 시행에서 발견되는 ‘산사’, ‘산중’, ‘산길’, ‘산골’, ‘산천’, ‘산벽’ 등은 상위공간으로서의 ‘산’을 구성하는 하위공간들이 아니다. 이들은 시의 정황에서 오브제화한 시적 표현이며, 산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따라서 굳이 이들을 구별해 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미 산은 산사를 품은 공간으로서, 불교적 상상력을 작동시키는 기저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게 산은 인간의 자연관을 투영하는 대상이며 정신적인 관조의 대상으로 존재한다. 또한 산은 삶의 일부로서, 세속에서 혼탁해진 정신을 정화시키며 삶에 대한 시인의 통찰력을 큰 폭으로 확대시키는 공간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산과 산사에 들어가면 그의 모든 시적 화자는 삶과 중첩된 개인적 상념이 소거되면서 인간 중심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연 자체의 양태에 시상이 집중된다. ‘산=불교적 세계’라는 김해성 이미지즘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그의 특이한 이력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 ① 나는, 나는, 나는 중학 3년 여름방학 때
졸업하면 승려나 되어 볼까 한 생각으로

해남 황산면 사는 당숙택엘 잠깐 들렀다가
대홍사를 찾아간 날 일사(一史) 스님 상봉이여.⁹⁾

② 나는 이 별장 마루 1개, 방 1개
또 부엌 1개에서 살고, 별장지기 모자는
(중략)
수도암과 칠팔십 미터 바위돌길을
사이 두고 나도 가난하게 자취생활 3년
인생공부, 시창작공부, 고독사상공부 등을 체험하여
빠져리게 느껴 평생의 내 자산으로 남았음이여.¹⁰⁾

③ 나는 나대홍 큰스님을 알았던 인연으로 하여
이 별당 방에서 겨울, 여름 방학을

의미있는 시작품과 논문도 많이 썼는데
김구 선생 놓고 자던 그 방이 좋았다.¹¹⁾

④ 나는 젊은 날 문정영 주지스님 계실 때
여름, 겨울 방학 인생수양 닦고 갈며
이 절간에서 시창작 하였는데¹²⁾

⑤ 나는 대전에서 오다가다 인연을 맺은
박운달, 이시영 두 스님 인연으로 나는, 나는
동학사의 말사 관음암에서 한 해 여름방학을 보냈으며
시인으로, 교수로 시창작과 연구논문을 갈고 닦았는데¹³⁾

⑥ 암자에 앉아 아래를 내려 보면 섬과 섬이고
푸른 바다만 몇 만리길이 환한 아침
우리 두 사람은 손바닥만한 텃밭의 상추쌈인데

9) 「해남 북미륵암」, 『김해성시문학전집』 제3권, 한국시사, 2015, 363면.

10) 「송천당의 3년 생활」, 위의 책, 403면.

11) 「공주 마곡사」, 위의 책, 412면.

12) 「도봉산 천축사에서」, 위의 책, 413면.

13) 「계룡산 동학사」, 위의 책, 434면.

오늘은 내가 떠난다고 하니 나에게 海星이 되라 하시며
종이쫓기에 적어준 그 큰 자비심행을 나는 못 잊고 살아라.¹⁴⁾

①, ②와 같이 김해성은 10대 중반의 나이에 불가와 인연을 맺어 산사에 기거하며 수년 간을 생활하였고, 성년이 되어서도 ③, ④, ⑤에서 보듯 방학 동안에는 늘 산사에서 수양을 하거나 시창작에 매진해 왔음을 알 수 있다.¹⁵⁾ 더욱이 ⑥에서처럼 해성(海星)이라는 필명도 스님에게서 받은 것이니, 김해성 문학에서의 불교적 형성은 그의 생애에 대한 전기적 고찰을 통해 더욱 선명해진다. 시학은 어떠한 것으로도 환원될 수 없는 시인만의 고유한 영역이지만, 그 고유성이 시학을 감싸고 있는 시인의 정신세계, 문학사적 배경, 사회사적 특수성 등과 전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산사에서의 생활을 통해 얻어진 산의 이미지는 그의 작품을 통해 명상과 지혜와 초탈과 무욕 등 불교적 세계관을 투영하는 대상으로 나타나며, 동시에 자연과

14) 「인생무상」, 위의 책, 435면.

15) 김해성은 해남 대흥사 북암에서 일사 스님과 생활한 것이 인연이 되어 평생 불교를 정신적 지주와 사상의 기둥으로 삼았다. 그는 자신의 시전집 부록에서, 평생을 통해 수양하고 문학을 공부했던 전국 각지의 산사와 그곳에서 인연을 맺었던 스님들을 밝혀 슬회하였다. 해남 대흥사(일사 스님), 전주 승암산 수도암(용호·동궁스님), 진안 은혜사(서안 스님), 장성 백양사(만암 스님), 순천 송광사(소암 스님), 김제 금산사(해연 스님), 공주 갑사·마곡사(대홍 스님), 계룡산 동학사 관음암·미타암(시영·운달 스님), 속리산 법주사(영도 스님), 수락산 수정암(일산 스님), 도봉산 천축사(정영 스님), 삼각산 경원암(인구 스님), 가평 만경암(지원 스님), 예봉산 수도암(자혜 스님), 남양주 운길산 수종사(호암 스님), 인제 백담사(오현 스님), 종로 조계사(범성 스님) 등이며, 이외에도 용문산 용문사, 경주 불국사, 논산 관촉사, 양양 흥연암, 부여 고란사, 부여 무량사, 안동 석탑사, 여수 향일암, 목포 유달사, 청도 운문사, 영월 범홍사, 팔공산 갓바위 선본사, 의성 고운사, 하동 쌍계사, 홍천 천봉사, 경주 칠불암, 진주 여항산 성전암, 합천 해인사, 예산 수덕사 견성암, 평창 월정사, 구례 화엄사, 양산 통도사, 치악산 구룡사, 고창 선운사, 삼각산 진판사, 도봉산 대원사, 금정산 범어사, 정읍 내장사, 여주 신륵사, 밀양 표충사, 수원 용주사, 광릉내 봉선사, 불암산 불암사, 영암 도갑사 등의 사찰을 찾아 여러 스님과 인연을 맺으면서 불교를 시적 상상력의 원천으로 삼았다. 이와 같이 그의 불교적 상상력은 실제 수행에 정진하던 스님들과의 만남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의 융합을 구하는 가장 구체적 공간이자, 예술적인 미적 공간으로서 ‘산=불교적 세계’라는 시학적 지향과 지조를 형성하기에 이른다.

이와 같이 김해성의 시세계는 그의 독특한 삶의 전인적 시화(詩化)로 이해된다. 다름 아니라 불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미지의 연결과 생산을 일컫는다. 자연관이나 생명관 등에서 차별되는 불교의 특징적 가치는 서구의 도구적 자연관에 대한 반성적 성찰로써 자아와 세계와의 참다운 관계를 모색하는 데 있으며, 모든 존재에 대한 연민으로써 우주적 생명의 본성이 회복되기를 기원하는 상생의 생명관을 추구하는 데 있다. 김해성의 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러한 불교 철학적 지평은 연기(緣起)와 윤회의 세계관을 비롯한, 물아일체, 제행무상 등의 사유로 공유되거나 혹은 선시적 특성으로 변주되고 있다.

3. 미의식의 불교시학적 전개와 그 기제의 특성

3.1. 연기(緣起)와 윤회의 상상력

불교는 전래 이후 오랫동안 토착화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인의 정신과 삶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을 일관되게 제공해 왔고, 이 같은 해석 방법이나 내용은 우리에게 깊숙하게 체화됨으로써 일정한 세계관적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전통 한국시의 근원에 비추어 볼 때 불교적 상상력은 하나의 무의식으로 존재한다. 불교적 상상력은 주체와 타자, 사물과 의식, 존재와 비존재를 구별하지 않는다. 있음 [色] 과 없음 [空] 을 구분해 낼 수 없는 우주적 삶의 내적 강도로 인식한다. 그러므로 불교적 상상력 자체는 어떤 분명한 주의나 이념적 실체와 무관한 하나의 사유방식이다. 많은 시인들이 불교적인 것을 신앙이 아닌 미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¹⁶⁾ 불교사상이 경전의 철학적 의미라기보다는 이미 보편의 의식으로 넓고 깊이 침윤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세계관이나 생명관 등에 있어 불교의 특징적 가치는 연기와 윤회 사상을 그 핵심으로 한다. 즉 우주의 모든 사물이나 존재는 서로의 원인이 되며, 삶과 세계는 대립을 초월하여 끊임없이 반복 순환하면서 하나로 융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 주목하고 있는 김해성의 시작품에서도 연기와 윤회의 상상력은 그의 작품을 관류하는 직접적인 축으로 작동한다. 그리고는 가장 우세한 미학적 기제의 주류적 특성을 형성하는 동시에, 시편의 내적 질서를 공고히 하는 사유체계의 한 갈래로 자리잡고 있다.

곧은 성격
바른 마음
해와 달과
같이 살아

구름송이
해와 달빛
비껴가는
산처럼 살아

불도에 가는 길
너와 나와 그
서로 다르지만
만법귀일래로 살아

해와 달은
어제도 오늘도
윤회불법 따라
아침 저녁 살아

심심불이며, 처처불이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¹⁷⁾

16) 신진숙, 앞의 글(2012), 310-311면 참조.

17) 「해와 달의 윤회」, 『김해성시문학전집』 제3권, 한국시사, 2015, 364면.

공시(共時)의 생명이 있는 일체의 것들은 내적으로 모두 일정한 상호 관련을 맺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독자적인 개별 생명들로서의 “해와 달”이고 “구름송이”이며 “너와 나와 그”이지만, 내적으로는 인과연에 의하여 모두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다. 연기적 상상력에서 우주에는 어떤 하나의 개체가 갖는 고유한 행위나 생각이란 있을 수 없다. 우주는 마음이나 물질, 에너지 등의 모든 만상이 인과론으로 뒤엎힌 유기체로서, 연기에 의하여 하나의 개체로 매듭지어진 것들은 다시 타자들을 형성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시에서 이들 개체의 관련은 “불법귀일래”로 수렴된다. 불교사상의 목적이 마음의 해탈과 번뇌의 근원에서 벗어나는 데 있듯이, 불법에의 귀의는 결국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의 의식세계임을 보여준다. 윤회는 결코 종말이 없다. 해와 달처럼 영원불멸한 것이다. 곧 이 시가 보여주는 불교적 상상력은 “어제도 오늘도 / 윤회불법 따라 / 아침 저녁 살아” 가는 것에 있다. 단순히 개체에서 개체로 이어지는 영원성이 아니다. 모든 자료와 정보를 담은 거대한 그릇으로서 우주와 개체는 무한한 소멸과 생성의 연쇄 속에 불멸 없이 이합집산을 되풀이한다는 것이 김해성이 상정하는 윤회다.

흔히 불가의 입장에서 보면, 윤회는 벗어나야만 하는 부정적인 순환을 말한다. 그래서 다음 세상에서 더 귀한 삶을 살기 위해 현재의 삶에 충실하며 나를 자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윤회론에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는 미학적인 상상력을 발굴해 낸 김해성은 윤회를 긍정적인 영원성의 차원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는 타자와의 조화로운 영원성이 곧 인간과 자연 만물이 생생불이(生生不已)하는 바의 이상으로서, 이때 윤회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순연함을 전제로 한다. “무심무소유 안에는 하늘 땅도 없고 / 나도 너도 없고 그저 윤회만 있느니라”¹⁸⁾, “허허! 인생은 무상한 것 / 시간은 억만년 윤회 안에서 / 돌고, 또 돌고만 있는데”¹⁹⁾, “사계절 윤회 / 하늘 땅 돌아 / 해와 달은 / 사방을 도는가”²⁰⁾, “한 쌍의 석불은, 석상은 / 해와

18) 「너와 내가 없다」, 위의 책, 418면.

19) 「출가와 스님 아닌 너와 나」, 위의 책, 362면.

20) 「스님과 고향」, 위의 책, 377면.

달같이 윤희길 따라”²¹⁾ 등 많은 시편들에서도 연기와 윤희의 상상력은 우회 혹은 간접화에 의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 공존공생의 균형을 지향하는 간단없는 시적 중심 모티프로써 시 텍스트에 그대로 표출되고 있다.

순간은 영원을 낳고
영원은 순간을 낳는데

시간과 세월은
형제시간의 윤희인데

꽃이 지는 창가에
밝은 원광이 떠오르면

순간과 영원은
하늘 땅의 어머니 뿌리어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²²⁾

불교적 상상력에서 시간관은 근대적 시간개념과 다르다. 원인과 결과로 연기되는 현상들의 연속적 흐름인 윤희 안에서는 시간도 인연의 흐름에 따라 영겁회귀하는 것이다. 근대인의 시간관이자 서구 인간중심주의적 시간관의 요체는 부분과 전체가 어긋남없이 맞추어진 시계의 숫자처럼 선형적·직선적 인식 속에 시간을 보이는 것으로 표상한다. 그러나 불교적 의미의 시간은 찰나의 순간이라도 역겁의 인연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것이다. 즉 찰나는 무수한 존재의 시간이 응축된 순간으로, 불교에서 시간은 무한히 포개진 것으로 인식한다. “순간은 영원을 낳고 영원은 순간을 낳는” 불명료한 시간이다. 또한 그것은 영원히 앞으로 향하는 시간인 동시에, 영원히 되돌아오는 시간이다. 곧 모든 생명체에 내재되어 있는 “시간”은 그 시간들이 쌓인 “세

21) 「왕궁의 石佛 石像 앞에서」, 위의 책, 439면.

22) 「순간과 영원」, 위의 책, 440면.

월” 속에서 “형제지간의 윤회”로 재구성되는 원형적·순환적 시간인식으로 수용되고 있으며, 결국 “순간과 영원”이라는 시간의 고리는 “하늘 땅의 어머니 뿌리”로 이어지는 대자연의 근간임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연기와 윤회의 상상력은 인연을 유지하며 영원토록 우주를 순회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윤회론적 상상력에서는 인간과 자연과 사물의 경계가 무의미해진다. 윤회를 통해 개체들은 인간이나 동식물, 때로는 사물이나 물질로 몸을 갈아입으면서 우주를 순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기설과 윤회사상을 축으로 한 세계와 삶에 대한 인식은 생명체를 생명관계로서 규명하고자 하는 생태적 상상력과 본질적으로 그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현대사회가 와해시킨 인간과 우주와의 연속성에 대한 깨달음으로부터 출발하는 연기와 윤회의 상상력은, 김해성 시와 같은 21세기 현대시의 근대 극복의 대안으로써 여전히 유력한 방법론이자 미학의 원리로써 모색되고 있으며 그 미적 포괄성으로 수용되고 있는 것이다.

3.2. 물아일체의 시학적 성격

불교에서 자연은 인간과 구분되거나 대립되는 존재가 아니다. 자연관이나 생명관 등에서 불교의 특징적 가치로 대표되는 불교사상은 우주의 모든 사물이 연기적 상호관계에 있음을 핵심으로 한다. 즉 모든 존재는 서로의 원인이 되며 대립을 초월하여 하나로 융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 불교의 전통 안에는 자연에 대한 두 가지의 접근 방식이 있는데, 그 하나는 인간이 이용하기 위해 환경을 인간화함으로써 얻어진 자연의 기지(機智)에 대한 숙달과 이용이고, 다른 하나는 명상적 태도로 그것을 통해 자연 속에서 평화와 평정을 찾아내는 것이다.²³⁾ 자연 속에서 평화와 평정을 찾아낸다는 것은 바로 사람이 자연과 혼연일체가 됨을 뜻한다. 객관적인 존재인 나와 내 앞에 놓여 있는 객관적 존재의 일체인 대상 간의 합일을 의미한다. 범화경의 사상 속

23) 파드마스트리 드 실마, 『불교 환경윤리학』; 김용정, 「생태학과 불교의 공생윤리」, 『종교연구』 10집, 한국종교학회, 1994, 19면에서 재인용.

자타일체, 즉 물아일체(物我一體)의 세계관이다.

새도 울지 않고
바람소리도 없는데

깊은 산중에
인적은 더욱 없다.

산골 물소리
졸졸졸 숨쉬는 소리

산천을 울림하면
잊었던 어제의 기억

동승 바위에 기대어
낮잠을 한숨 자고 나면

산은 산이요, 나는 나요
하늘도 산도 나도 하나다²⁴⁾

자연을 묘사하면서 그 자연을 매개로 특별한 정서를 표출하는 것은 시인만의 특성이자, 나아가 그들 고유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인은 자연의 어느 특정 현상이나 대상을 보면서 스스로의 삶과 비교하게 되는데, 이때문에 의인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말하자면 동일성의 원리에 따라 인간과 자연이 동질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새소리, 바람소리조차 없는 깊은 산중에 있는 화자는 작은 산골물 소리에도 지난 시간들에 대한 변뇌에 싸이고 마는 수행자이지만, 이내 “하늘도 산도 나도 하나”라는 무아(無我)의 사유에 이르게 된다. 자아와 세계, 주체와 객체, 인간과 자연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서구의 근대적 이분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발상이다. 바로 김해성이 보여주는 불교적 상상력은 주체와 타자, 사물과 의식, 존재와 비존재를 구별

24) 「산사와 동승」, 『김해성시문학전집』 제3권, 한국시사, 2015, 389면.

하지 않는 불이(不二)의 정신이다. 있음과 없음, 대립과 차별을 구분해 낼 수 없는 우주적 삶의 내적 강도 혹은 어떤 분명한 주이나 이념적 실체와 무관한 일의(一義)의 사유방식을 지향하는 개념이다. 또한 세계 내의 일체 사상(事象)을 상호유기적인 통합적 존재로 파악하는 인식이다. 이때 집착을 깨뜨리는 내적 각성의 깨달음은 “바위에 기대어”가 표상하는 제유적 의미에서 비롯된다. 즉 바위는 불교적 은유의 양상이면서 보편적인 불교적 세계관의 속성까지를 수렴하는 비유적 상징²⁵⁾으로서, 불법에 귀의하고자 하는 동승의 불교적 인연을 개입시키는 감응 관계를 만들면서 가능했던 일이다.

앉아 있는 너와, 서 있는 나
 둥근 圓을 닮아가는 마음

멈추는 자리마다 흔적은 없고
 日月은 자리 없는 길을 가는데

꽃진 땅이 그렇게도 고와서
 나는 풀잎으로 태어나 켜는가.

만상을 구름결에 실어 보내고
 한 선에 고요히 멈춘 나와 너의 마음

티끌 같은 이승의 존재로 서서
 청정한 마음을 갈고 닦아 밝은데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되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되느니라.²⁶⁾

25) 바위는 영원, 불멸 등의 상징성에 의해 오래 전부터 이를 매개한 타력신앙이 유행했고 신앙물로서의 아우라를 획득하고 있었다. 특히 불교는 민간의 신앙체계와 유연하게 습합되는 과정에서 바위가 지닌 성소(聖所)로서의 내력과 기존의 권위를 수용하는 한편, 불교적인 염원을 담은 많은 불사(佛事)를 행하기도 했는데, 바위면에 불상을 새긴 마애불이 그 대표적인 경우다.

26) 『禪家·16』, 『김해성시문학전집』 제3권, 한국시사, 2015, 484면.

인간의 세계는 “앓아 있는 너와, 서 있는 나”에서처럼 ‘그’ 혹은 ‘그들’이 부재하는 ‘나-너’의 관계형성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자아초월이 이루어진다면 인간들은 ‘그’와 ‘그들’은 물론이려니와 나, 너, 그 등의 말이 불필요한 일물(一物)의 여여(如如)한 세계를 구현할 수 있다. 바로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되고 /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되”는 세상과의 온전한 합일이 이루어진다. 이때 개체로서의 나를 비우고 대상과 하나가 되는 전일(專一)한 합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둥근 圓을 닮아가는 마음” 혹은 “한 선에 고요히 멈춘 나와 너의 마음”으로 세상과 감응하는 일이다. 특히 ‘둥근 圓’, 즉 ‘○’는 공(空)의 개념으로 순환의 원리를 반영한다. 불교적 세계관에서 모든 존재는 본래 아무 것도 없는 것이지만, 반대로 공(空)으로부터 모든 존재의 현상이 나타난다. 처음이자 끝이며, 유(有)이면서 동시에 무(無)이고, 만(滿)이면서 동시에 공(空)이어서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되고 /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되”는 전체성을 상징적으로 실현한다. 있음의 없음, 그리고 없음의 있음이라는 이러한 불교적 역설은 우주의 근원이며 궁극의 것으로, “청정한 마음을 갖고 닦아 밝”아야 개체적 나에 구속되어 있던 것에서 벗어나 우주적 정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승화된다. ‘나-너’의 마음이 ‘모습 아님’이라는 불교적 상상력을 근거에 내재시키고, 그 자연의 힘에 의해 작동되는 자아초월의 탈속적 무위의 세계를 ‘나-너’, 아니 ‘나-나’의 관계 속에서 형성해 내는 김해성의 시적 상상력은 모든 관념과 사물이 우주를 향해 펼쳐져 있다. 자신이 우주이고, 우주가 자신으로 하나인 물아일체의 세계다.

하늘이 / 땅이 되고

땅이 / 하늘이 된다.

얼음이 / 물이 되고

물이 / 얼음이 된다.

거울 속에 / 내가 있고

내 속에 / 거울이 있다.

(중략)

없는 것 안에 / 있는 것 없고

있는 것 안에 / 없는 것 있다.²⁷⁾

따라서 전 우주의 존재는 따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생겨난 속성을 지닌다. 주체와 타자, 이것과 저것, 자아와 세계를 분리하지 않는 이러한 자타불이의 맥락에서 ‘하늘과 땅’, ‘얼음과 물’, ‘거울과 나’, ‘있음과 없음’도 마찬가지로이다. 이들은 고정적이고 독립된 실체가 있을 수 없는 비밀비이(非一非異)한 존재양식으로서, 결국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불일이불이(不一而二)의 세계관을 담아낸다. 그리고 시인은 이를 통해 끊임없이 연기를 이루는 우주 삼라만상의 존재원리 안에서 ‘하늘과 땅’, ‘얼음과 물’, ‘거울과 나’, ‘있음과 없음’의 모든 경계를 이루는 것이 사라져 궁극적으로 차별과 대립이 없는 원융무애(圓融無碍)한 화합을 이루고 창조적 순환과 통합을 이루어서 마침내 우주 본성이 회복되기를 꿈꾸는 것이다. 우주를 분리되고 고립된 존재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통합되고 상호적인 전체로 바라보는 불이의 사유방식은 자아와 세계에 대한 참다운 관계를 반성적으로 성찰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근대사회에서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사유는 타자와 세계를 억압하고 통합된 정서보다는 분열되고 해체된 정서를 조장하게 마련이다. 이에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바라보는 자타불이의 윤리관을 시적 밑바탕으로 삼고 있는 김해성의 시는 파편화된 근대사회가 직면한 모순과 부조리를 극복할 수 있는 모색으로 받아들여진다. 다시 말해 우주를 전일적으로 직관하고 내가 무아의 자연이 되는 몰아일체의 접근방법은 근대사회에 대한 비판적 대안의 성격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7) 「禪歌·1」, 위의 책, 464-465면.

3.3. 제행무상의 시학적 성격

김해성의 불교적 상상력은 나이, 늙음, 죽음, 존재 등의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이러한 시적 대상을 불교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미적 포괄성으로 변용시키고 있다. 바로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는 불교의 위대한 통찰을 시의 방법으로 차용하는 것이다. 제행무상이란 제법무아(諸法無我), 열반적정(涅槃寂靜)과 함께 불교의 근본 교의인 삼법인(三法印) 가운데 하나다. 모든 만물은 변화하며 고정불변하여 머물러 있지 않다는 일체 존재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로서, 인생무상(人生無常)과도 의미가 상통한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무수한 인연에 의해 현재의 모습을 가지는데, 지금의 이 모습 또한 무수한 인연에 의해 항상 유동적이라는 것이다. 산천도 변하고, 고향도 변하며, 사람도 변하고, 나도 변화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일체의 제행(諸行)에 대한 무상(無常)함을 받아들이는 김해성의 시적 정신이 결코 염세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상존하거나 불변하지 않아 슬프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생멸변화하기 때문에 비로소 모든 집착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제행의 무상은 우주만물이 유전(流轉)하는 시간적 지속성을 지닌다고 간주한다.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이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계절의 순환성과 시간의 윤회원리에 따라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처럼, 자연에서 깊은 뜻을 찾는 시인의 자세도 세월의 영향을 받지 않고 불변성을 유지하려 한다. 존재인 실체 너머를 추구하는 영원하고도 무한한 지평에 대한 염원이다.

송천당가 100년된 소나무는 지금 간 곳 없고
수도암에 계셨던 늙은 동궁 스님도 간 곳이 없다²⁸⁾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오늘도 기울고
울겨울칠 어느 날 보원 賢弟의 전화를 받으며
나는 향수에 깊게 넓게 젖어 고향산하를 생각했는데

28) 「승암산 수도암」, 위의 책, 366면.

아아! 우리 마을 앞 구수봉과 그 밑에 흐르는 영산강은
바람과 구름과 시간 위에 묵언천년 그대로인데
어쩔거나, 어쩔거나, 어쩔거나 인생무상이어라²⁹⁾

어느 순간순간은 구름송이, 물소리, 산그늘도 나와 묵언 대화를 나누는
선사의 도풍을 풍기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이제 나도 늙은 시인으로 누구를
찾아간들 반가워하겠는가³⁰⁾

노승의 굳은 신심과 불심 따라
늙어 온 바위 내심인데

세상일은 모두 잊고 살아도
백발은 늘어만 가는 오늘이여³¹⁾

이처럼 일체의 현상계는 가변성을 갖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화자는 이를 결코 비판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상함을 절망적인 의미로 오해하고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과는 대조되는 대목이다. 그는 초자연적 세계인 불교의 인식체계를 이해하고 이것에 접근하며 그 핵을 부단히 탐색하고자 한다. 그래서 “지금 간 곳 없”는 산천과 사람들로 인해 “어쩔거나, 어쩔거나 인생무상”을 말하지만, “백발은 늘어만 가는 오늘” “이제 나도 늙은 시인으로 누구를 찾아간들 반가워하겠는가” 하고 자신과 연계되어 있는 공간과 시간에 대한 제행무상의 깨달음을 의표한다. 그러나 화자는 마침내 “하늘과 땅과 산을 / 벗하여 살다 가는 인생인데 // 나와 너는 자연 속에서 / 바위 같은 의지로 산다”³²⁾고 선언하며, 세월과 노쇠와 죽음 등 인간의 비애를 구제하고 번뇌를 연소시킨다. 즉 시인 자신의 견고하고 부동한 제행무상의 정신은 세계관 형성의 촉발과 더불어 시적 미학으로 수용되면서 그의 시세계에 있어 한 축을 담당하는 커다란 지평을 열고 있다.

29) 「60여 년의 情景」, 위의 책, 592면.

30) 「나의 요즘 日記·1」, 위의 책, 594면.

31) 「노승의 토굴절에서」, 위의 책, 462면.

32) 「禪歌·13」, 위의 책, 480면.

김해성의 이러한 불교적 상상력은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의 바탕 위에 시작(詩作)을 구현한 데서 기인한다. 인간이 번뇌에 빠지게 되는 것은 물(物) 그 자체보다도 그것에 대한 소유욕 때문이다. 그러나 '본래부터 한 물건도 없다'는 말처럼, 본질적으로 내 소유라는 게 없음을 알고 물(物)과 원만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김해성의 무(無)와 무심(無心)의 사상은 그의 시를 물질적, 생리적 욕망의 세계 속에 한정하지 않고 정신적 높이와 넓이를 지닐 수 있도록 기능한다.

나는 오늘도 나의 오점 크고 작은
하나를 갈고 닦아 없애고 살며
보이지 않는 목도를 향하는데

어쩔거나, 어쩔거나, 어쩔거나
갈고 닦는 시간과 날이 그렇게 많았기에
나는, 또 나는 날짜를 손꼽고 있어라

부처님은 시간도 날짜도 없는
무한 속에 존재하는 심상이며
밤낮없이 내 마음 속의 표상인데

심심불이며, 처처불이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³³⁾

나는 없다가 있고
없다가 또, 있는데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무존재의 순간순간이어라

저, 높은 산도 있다 없고
없다 있어 다시 다가오는데

33) 「심심불, 처처불」, 위의 책, 347면.

너와 나는 누구이며 무엇인가
마음과 몸도 무념으로 돌아간다

심심불이며, 처처불이요
처처불이며, 심심불이요³⁴⁾

“무한 속에 존재하는 심상이며 / 밤낮없이 내 마음 속의 표상”으로 이미 심심불 처처불(心心佛 處處佛)이라는 진리를 달각한 화자는 “마음과 몸도 무념으로 돌아간다”고 했으니, 진정으로 인간적 고뇌의 질곡을 초월하였거나 인간적 삶의 초극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아마도 “너와 나는 무소유를 / 깨닫게 하는 종소리”³⁵⁾와 “둥그런 / 원을 닮아 살은 / 무를 향한 나의 생활”³⁶⁾에 의한 깊은 성찰의 결과일 것이다. 그리고 “무슨 큰 욕망과 바람을 / 바라고, 또 바라고 나는 살라 // 도인처럼 묵언으로 살면서 / 온달 바보같이 미련하게 숨 쉬”³⁷⁾면서 “무소유자의 소유자로 평생을”³⁸⁾ 살고자 하는 인생관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무일물(無一物)의 존재임을 자각했던 시인 김해성은 그 무엇도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 작은 것을 가지고도 큰 것을 가지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었는지 모른다. 진정으로 비어 있는 것은 묘하게 존재한다는 진공묘유(眞空妙有)의 사유법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이와 같이 불교적 상상력은 일종의 모순어법에 가깝다. 이것과 저것을 나누어 비교하고 분별하는 근대 이후의 위계적인 이분법적 사유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연의 모든 존재는 하나의 개체이면서 전체로서의 우주와의 관계된 존재라는 연기론적 사유는, 주체와 타자의 평등을 전제로 하는 자타불이의 물아일체 사유를 가능하게 하고, 내가 고정적이고 독립적인 존재가 아닌 것처럼 세상만물은 어느 것 하나 영원불변한 고정적 존재가 없다는 제

34) 「선방 정경」, 위의 책, 453면.

35) 「불국사 종소리」, 위의 책, 401면.

36) 「禪歌·27」, 위의 책, 497면.

37) 「바보 온달처럼 살아」, 위의 책, 355면.

38) 「藍田 보살님께」, 위의 책, 392면.

행무상의 인식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곧 불교의 근본이념이 인간과 인간, 혹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대립과 경쟁이 아니라 상생과 화해의 관계로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것이 바로 현대시가 불교적인 것을 사유하는 접점이 된다. 자아와 세계의 절대적 평등이나 화해와 상생의 정신에 대한 지향은 모든 존재에 대한 생태학적 비전을 반영하는 현대시의 의도와 정확하게 부합하고 있으며, 위계화된 근대적 사유체계에 대한 반성으로서 도구주의적 자연관과 인간중심적 가치관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4. 직각과 오도를 향한 수행자의 선가(禪歌)

문명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은 언어를 매개하지 않고는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다. 이 말은 곧 언어를 매개하지 않고 우리의 삶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와 같다. 그런데 개념인 언어와 사물인 존재는 동일하지 않다. 그리고 이처럼 동일하지 않은 것을 동일시하는 순간, 우리는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없게 된다. 우리가 사물인 존재를 개념인 언어로 인식하는 순간에 우리 의식의 거울은 그 개념과 인식으로 오염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우리가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인식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오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물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김해성 시작품 가운데 총 35편의 「禪歌」에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호체계의 상징성과 비유성을 차용하여 시인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로써 선시(禪詩)의 성립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즉 선시의 형식논리는 이론적이거나 합리적 사고를 초월하는 언어의 비유와 상징과 은유를 표상으로 하는 것이다.³⁹⁾ 더욱이 그는 고도로 절제되고 압축된 표징으로써

39) “정신적 세계의 표현에 있어 선가는 지극히 압축된 언어, 비약적이고 비유적이며 고도로 상징화된 언어를 사용한다. 절대적 세계를 상대적 언어로 나타낼 수 없는 데서 오는 결과다. 이는 시에 있어서 깊이 있는 투시력이나 영감에 의해

실상으로부터 감지된 그의 예술적 직관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시선일여(詩禪一如)의 언어를 탐색하는 김해성의 시세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선일여의 시학은 시(詩)와 선(禪)의 바탕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발상에 근거한다. 그리고 문학과 선(禪)이라는 불교정신은 이 지점에서 만난다. 즉 직관에 의한 마음을 투영시키는 시화(詩化)가 불교의 직각(直覺)의 사유방식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 붓다의 말씀인 교(敎)와 마음의 선(禪) 역시 지극한 현실을 우리 삶 속에 실현하려고 한다. 시가 삶의 진실과 비의를 언어예술로 보여주는 것처럼, 선(禪)도 우리 삶의 지극한 현실을 실현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산이 거꾸로 서서
걸어오고 있다

산이 옆으로 누워
옆으로 걸어오고 있다

산이 웃는 소리
바다와 강물이 울고 있다

산이 우는 소리
하늘 땅이 한참 꿈에 잠긴다⁴⁰⁾

선(禪)의 과녁은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보는 것에 있다. 선은 언어와 개념으로 오염되기 이전의 ‘지극한 현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하려고 한다. 여기서 ‘지극한 현실’이란 우리의 언어에 의해 가려지거나 막히지 않은⁴¹⁾,

획득된 시적 경지를 나타냄에 있어 사용되는 언어와 동일하다. 이처럼 그 사고와 언어표현에 있어 선(禪)과 시(詩)는 공통적 특질을 갖게 되며, 여기서 선시 발생의 계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인권환, 『한국불교문학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54면 참조)

40) 「禪歌-9」, 『김해성시문학전집』 제3권, 한국시사, 2015, 476면.

41) 고영섭, 「말이 끊어진 자리에서 태어난 시」, 『유심』 통권70호, 만해사상실천선

곧 사유작용을 거치지 않은 대상에 대한 즉각적인 인식 및 깨달음을 뜻한다. “산이 거꾸로 서서”, “산이 옆으로 누워” 걸어오고 있다는 화자의 표현은 선의 세계가 지향하는 낯선 어법이다. 따로 언어나 문자를 내세워 말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전하는 데 참뜻이 있다는 선(禪)의 불립문자(不立文字)에 다름 아니다. 인간은 직립에 의해 언어를 발견하였지만 동시에 그 언어에 얽매여 존재의 진실한 모습, 혹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선시는 보수적 문법이나 모순적 어법을 초월하거나 해체하여 현상과 본질의 사이를 바라보는 것이다. 김해성이 선(禪)의 언어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이름’을 부여하기 이전의 존재의 진실한 모습, 언어의 규정을 뛰어넘어 자유롭게 자리하는 존재 자체를 체화시키려는 작시는 바로 이 때문이다. 이것은 계승(偈頌)으로부터 비롯된 우리 선시의 표현법 내지 선적 세계관을 면면히 계승하는 일이기도 하다.

한편 김해성 시편에서 선적 세계관은 차(茶)를 실천적 관점으로 적용한다. 차를 단순한 음료가 아닌 구도(求道)의 한 방편으로 여겨온 불가의 오랜 전통이 되살아나고 있다. 즉 차는 집중적인 삼매의 경지로 이끌어 사물과 진리를 통찰할 수 있는 각성의 상태를 구현하게 하는 수양법이 된다. 그리고 이는 더 나아가 시인 자신이 본래 청정한 진여 자성의 참마음을 찾아가는 체험의 바탕으로 승화된다.

날이면 날마다
차를 마셔 보면
내, 갈증은 가시는데

물맛도, 차맛도
신비경을 모르고
살아가는 속인이여

번뇌에 한참 시달려

양희, 2014, 69면.

세상사 잊고 싶은 사람
찾잔을 들어 日月을 보는데

술에 잔뜩 취한 이도
고민에 긴 시간 취한 이도
차 마셔 잊어 봄이어⁴²⁾

화자는 차 생활의 실천적 체험으로 갈증을, 번뇌를, 세상사를, 고민을 잊어 보자고 한다. 아울러 시인 자신도 다선일미를 표방하는 선 수행의 관점으로 차를 마시고 시를 쓰는 생활을 일치시킴으로써 시선일여(詩禪一如)를 체현하고 시선일여의 미학을 추구하고자 했다. 이로써 시인은 차를 대하는 순간 항상 본연의 자신을 자각하며 어디에도 집착이 없는 바라밀의 세계, 즉 선의 세계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김해성은 차(茶)와 선(禪)이 결코 둘이 아닌 하나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그의 선시에는 차를 마시는 선승, 찾잎을 따는 동승, 차나무와 차밭, 각 사찰의 대표적 차에 대한 멋과 맛이 매우 자주 복원되고 있다. 시인에게 있어 차는 선의 궁극목표인 오도(悟道)로 향하는 도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질푸른 잎새마다 얽힌 전설이사
새로운 향기 같아 두고두고 자랑이라
절간 선승들의 해탈오각 첩경인데⁴³⁾

오늘 새벽 낮달 빛 밝은
산사 차방엔 대선사 노스님네
은은한 차향기에 대각했는가⁴⁴⁾

대나무 찾잔 푸름 들면

42) 「茶 生活」, 『김해성시문학전집』 제3권, 한국시사, 2015, 521면.

43) 「차밭과 禪童」, 위의 책, 511면.

44) 「禪僧과 차밭」, 위의 책, 513면.

다사한 불경소리
茶연기 속에 머무는데

어디서 얻어 왔나
고승 대덕 묵언 선방에
禪茶 화합 일갈 소리 난다⁴⁵⁾

선경에 드신
대선사 말씀이사
작설차 향기인데⁴⁶⁾

선정에 마음 깔고 닦는 속에
경 읽는 심상의 위력이사
茶향기에 도가 트이는 작업인데⁴⁷⁾

작설차
한 잔, 두 잔
따라 놓는다
.....
순간 다갈 치면
선사, 선사는
득도하는 순간이여⁴⁸⁾

화자는 차를 통해 삼매에 이르는 다선일미(茶禪一味)의 경지를 일관되게 노래한다. 차를 마시는 것은 선 수양을 하는 일과 한 가지라는 뜻으로, “선경에 드신 / 대선사 말씀이사 / 작설차 향기”라는 시구가 바로 그것이다. 다향에 취하고 차를 마시는 것이 참선의 깨달음과 같다는 이 정신은 차와 그것을 마시는 나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마침내 자기의 본성을 깨닫는 자연합일과 무일물의 사상을 체득하는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곧 화자에게

45) 「송광사 옥과차」, 위의 책, 515면.

46) 「영암 도갑사 작설차」, 위의 책, 516면.

47) 「초의선사 찾집」, 위의 책, 518면.

48) 「차 마시는 순간」, 위의 책, 520면.

있어 차를 마시는 일이란, “해탈오각 칩경”으로서 “차향기에 대각”하고 “茶향기에 도가 트이”며 “득도하는 순간”을 맞아 “선다(禪茶) 화합”에 이르는 행위가 된다. 이렇듯 시편 후반부마다 비약적으로 전개되는 찰나적인 초극의 세계는 심오한 달관의 경지를 느끼게 함으로써 무념무상의 가장 순수한 선취(禪趣)와 선미(禪味)를 선사한다.

4. 결론

한국 현대시에 있어 불교적 경험과 세계관은 의식적이든 암시적이든 시적 상상력의 한 바탕을 이룩해 왔다. 시의 미적 연결이나 생산에 있어서 한국 시문학의 바탕에는, 불교적 세계인식이나 상상력이 내재되어 있으며 불교사상이 긴밀하게 정신적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본고는 시인 김해성의 여러 시편들 가운데, 불교적 정취와 조화로움의 시적 수용이 돋보이면서 불교적 상상력이 두드러진 작품들을 중심으로 그의 불교적 시학의 의미를 살펴보는 한편, 시의 미학적 형식을 형성하는 그 기제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근대 서구의 이원론적 철학과 위계론적 세계관을 극복하고자 하는 오늘날 현대시의 대안적 사유 가운데 하나가 불교적 상상력에 있음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김해성 시상(詩想)의 대부분은 꽃과 나무, 강과 산에서 얻어진 자연친화적 서정성을 바탕으로 한다. 한국 전통 서정에 뿌리박고 시작(詩作) 활동을 해온 그에게서 자연은 정신의 생리이자 영혼의 안식처이고, 시적 대상이자 심적 발상이며, 그 자신이자 시 자체였던 셈이다. 이렇듯 향토적·토속적 자연관에 토대한 시인의 친자연적 서정미학은 한국적 휴머니즘이 함유하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다양하게 형상화해 낸다. 이때, 김해성 시편에서 친자연의 서정성은 불교정신과 결속하여 불교적 사유의 시적 수용이라는 문학적 성취를 보여준다. 이 둘은 서로 병치되기도 하고 혼용되기도 하며 어느 하나가 강조되기도 하는데, 한때 불가와 인연을 맺어 산사에서 기거하고 공

부하던 시인의 독특한 삶의 이력으로부터 이러한 불교적 시적 사유와 상상력의 준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불교적 상상력이 보여주는 사상체계와 생산원리를 통해 자신만의 시적 미학을 적극적으로 구축해 온 김해성의 시편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불교시학적 전개와 기제의 미학적 특성이 구현되고 있다.

첫째, 김해성의 시에는 불교시의 전통적 주제와 불교사상의 공간을 견고히 구축하고 있는 작품들이 많다. 불교적 상징물이 소재로써 작품에 자주 등장하거나, 주제면에서도 불교적 인식체계가 구체적으로 형상화된다. 바로 연기와 윤회의 상상력이다. 우주의 모든 사물이나 존재는 서로의 원인이 되며, 삶과 세계는 대립을 초월하여 끊임없이 반복 순환하면서 하나로 융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기와 윤회의 상상력에서 자아와 세계는 재생과 변신을 한없이 되풀이하는 영원한 서사다. 김해성은 불교정신으로서가 아닌 시학적 여과과정을 거쳐 우주만물은 상호의존적이며 상호참여적인 관계로서 순환성과 항상성으로 구성된 세계를 그려낸다. 우주만물의 평등성과 전일성으로 윤회를 긍정적인 순환으로 승화시킨다.

둘째, 김해성이 보여주는 불교적 상상력은 주체와 타자, 사물과 의식, 존재와 비존재를 구별하지 않는 불이(不二)의 정신이다. 객관적 존재인 나와 내 앞에 놓여 있는 객관적 존재의 일체인 대상 간의 합일을 의미하는, 곧 물아일체(物我一體)의 세계관이다. 이는 결국 존재 사이의 모든 경계를 이루는 것이 사라짐으로써 궁극적으로 차별과 대립이 없는 원융무애(圓融無碍)한 화합을 이루고 창조적 순환과 통합을 이루어서 마침내 우주 본성이 회복되기를 꿈꾸는 것이다.

셋째,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는 불교의 위대한 통찰을 시작(詩作)의 중심 사상으로 삼았다. 이 세상 만물은 어느 것도 영원불변한 고정적 존재가 있을 수 없다는 제행무상의 인식은 시인으로 하여금 나이, 늙음, 죽음, 존재 등의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이러한 시적 대상을 전일적 생명으로 직관하고 존재의 실체 너머를 추구한다. 또한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의 바탕 위에 인간이 번뇌에 빠지게 되는 것은 물(物) 그 자체보다도 그것에 대한 소유욕 때

문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비움으로써 무아의 자연이 될 것을 추구한다.

넷째, 김해성의 시작품 ‘선가(禪歌)’에는 함축적이고 암시적인 상징과 비유를 차용하여 시인의 선적 미의식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로써 선시(禪詩)의 성립을 가능하게 하였다. 즉, 선시의 형식논리는 이론적이거나 합리적 사고를 초월하는 언어의 비유와 상징과 은유를 표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는 고도로 절제되고 압축된 표징으로써 실상으로부터 감지된 그의 예술적 직관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선적 진리의 표현에서 시선일여(詩禪一如)의 언어를 탐색하는 김해성의 시세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까닭이다.

이와 같이 김해성의 시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시작활동이 불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서 출발한다. 즉, 시인의 미의식이 불교적 상상력과 그 미적 포괄성에 맥락이 닿아 있음을 뜻한다. 특히 김해성의 불교시학적 사유체계는 불교적 상상력이 지닌 자체의 그 독특한 미학과 더불어서, 서구의 도구적 자연관과 인간중심적 가치관을 대체할 수 있는 현대 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근대의 기계론적 인과론과 달리 사물들의 인과관계가 순환적·비선형적인 관계를 이루고, 구별과 분별을 부정하면서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바라보며, 세계를 분리된 부분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통합된 전체로 인식하는 불교적 상상력에서는 서구 근대가 만들어 낸 긴장과 분열과 갈등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 상실한 자연과의 일체감과 동일성에 완벽하게 조응하고 교감하는 대안적 산물이라 할 만하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김해성시문학전집 간행위원회, 『김해성시문학전집』 전8권, 한국시사, 2015.

2. 단행본 및 논문

강석근, 『한국 불교시 연구』, 이회문화사, 2002.

고영섭, 「말이 끊어진 자리에서 태어난 시」, 『유심』 통권70호, 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14, 69면.

공광규, 「현대시의 불교설화 수용방법」, 『불교문예』 통권43호, 불교문예출판부, 2008.

권기호, 『선시의 세계』, 경북대학교 출판부, 1991.

김옥성, 「한국현대시의 불교적 시학」, 『문학·선』 2006년 봄호, 242-243면.

_____, 「한국 현대시의 불교생태학적 상상력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2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9.

김용정, 「생태학과 불교의 공생윤리」, 『종교연구』 10집, 한국종교학회, 1994, 19면.

김옥동, 『문학생태학을 위하여』, 민음사, 2003.

김중욱, 『불교생태철학』,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4.

김홍진, 「현대시의 근대 극복 대안으로서 불교적 세계관」, 『한국문예창작』 통권20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0.

박몽구, 「현대시의 선적 상상력, 그 현실과 문제」, 『불교문예』 통권33호, 불교문예출판부, 2006.

서규태, 『한국근대선가문학』,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94.

송수권, 「불교적 상상력과 시」, 『유심』 통권46호, 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10.

송준영, 「선시의 수사법과 현대시」, 『불교문예』 통권33호, 불교문예출판부, 2006.

- 신익호, 「현대시와 불교적 상상력」, 『문학마당』 통권36호, 문학마당, 2011.
- 신진숙, 「불교적 상상력과 미적 포괄성」, 『유심』 통권54호, 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12, 310-311면.
- 유임하, 『한국문학과 불교문화』, 역락, 2006.
- 유한근, 『현대 불교문학의 이해』, 종로서적, 1989.
- 이승하,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부처」, 『불교문예』 통권37호, 불교문예출판부, 2007, 303-304면.
- 이원섭·최순열 편, 『현대문학과 선시』, 불지사, 1992.
- 이형기 외, 『불교문학이란 무엇인가』, 동화출판공사, 1991.
- 인권환, 『한국불교문학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 임종욱, 『우리 고승들의 선시세계』, 보고서, 2006.
- 장영우, 「불교적 상상력과 현대시의 세계관」, 『한국어문학연구』 43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4.
- 홍기삼, 『불교문학연구』, 집문당, 1997.
- 홍신선, 『한국시와 불교적 상상력』, 역락출판사, 2004.
- _____, 「한국시의 불교적 상상력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43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4, 36면.
- 이리아 요시다까 저, 신규탁 역, 『선과 문학』, 장경각, 1993.
- 파드마스트리 드 실바, 『불교 환경윤리학』, 1994.

【Abstracts】

A Study on the Buddhist worldview and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shown in Kim Hae-Sung poetry

Hur Man-wook

This paper is among a number of specimens Kim, Hae-Sung, especially the acceptance of Buddhist poetic mood and harmony, yet looked at these remarkable works stand out Buddhist imagination. And could in these specimens of Buddhist imagination Kim, Hae-Sung showing on aggressively through the ideological system and production principles poetic aesthetics of the building, only to find themselves the following global awareness and aesthetic characteristics.

First, in Kim, Hae-Sung poetry there are a lot of works that firmly establish the traditional themes of space and time of Buddhism, Buddhist philosophy upon. Second, Kim, Hae-Sung showing Buddhist imagination is the spirit of one spirit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the subject and the other, things and consciousness, existence and non-existence. Third, made the center of the free spirit of poetry creation the great insights of Buddhism of freedom from the universe. Fourth, the ‘Zen song(禪歌)’ poetry of Kim, Hae-Sung has delivered the Zen and aesthetics of the poet borrowed the implicit and implicit symbolism and metaphor, and thus made possible the establishment of ‘Zen poetry(禪詩)’.

Therefore, research on the Poetic world Kim, Hae-Sung is one of the region reveals a poetic poet investigate the orientation. And we expect to contribute to expanding the study of the Buddhist world in terms of

awareness and shaping a new excavation and works of the poet's imagination appears to Korea modern poetry.

Key words: Kim Hae-Sung poetry, Buddhist worldview, Buddhist poetry, imagination of transmigration, a body of objects and self, intuition, enlightenment, Zen song

이 논문은 2016년 5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6년 7월 5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6년 7월 12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